

초록번호 : III-2-2

제 목	국 문	응급의료센터의 성과 평가 기준개발과 적용		
	영 문	Performance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Center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강철환 ¹⁾ , 김윤 ²⁾ , 이평수 ³⁾ , 김창엽 ²⁾ , 신영수 ²⁾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 ¹⁾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²⁾ , 한국보건 의료관리연구원 ³⁾		
	영 문	Chul-Hwan Kang ¹⁾ , Yoon Kim ²⁾ , Pyung-Soo Lee ³⁾ , Chang-Yup Kim ²⁾ , Youngsoo Shin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¹⁾ Armed Forces in Medical Command,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²⁾ , Korea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³⁾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강 철 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목적</p> <p>응급의료센터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이를 응급의료센터에 적용하여 우리 나라 응급의료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p> <p>2. 연구 방법</p> <p>1) 대상</p> <p>1996년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100개의 병원 중 연구에 참여한 35개 병원을 통해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원한 응급외상환자</p> <p>2) 방법</p> <p>35개 국내 응급의료센터로부터 획득된 1996년 1년간의 외상환자 진료자료를 이용해 ICISS값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응급외상환자의 진료성적을 나타내는 'W-통계량'과 각 응급의료센터의 case-mix를 뜻하는 '센터별 중증도'를 계산하여 개별 응급의료센터의 성과를 평가하였다.</p>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외상환자의 사망률 평가방법인 ICISS를 이용해 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외상환자 구성비와 진료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35개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응급의료센터로써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3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구성비와 외상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이 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많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의 외상환자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외상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W-통계량'의 경우 가장 높은 센터와 가장 낮은 센터의 차가 약 8로 나타나 응급의료센터의 질적 수준에 따라 동일한 중증도의 환자 100명당 8명까지 사망자 수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3차진료기관 지정여부, 대학병원여부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의 소재 지역별 등과 같은 응급의료센터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3차병원 및 대학병원, 서울시 소재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환자의 중증도는 높게,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고찰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응급의료센터는 많은 부분에서 질적 수준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예방 가능한 사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응급의료센터 성과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응급의료센터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시 또는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활용한다면 응급의료기관이 적정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